

# 강진군 “소상공인 살린다”...소상공인지원센터 개설

### 창업·성장·안정·특화 등 4단계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신보 용자·건축 상담·상표 등록·마케팅 업무 등 총괄

강진군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문을 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운영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강진군청 인구조획과 소상공인팀에서 운영한다.

강진군에는 5900여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중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생계형 업종이 대부분으로 강진군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센터장, 사무국장, 전문요원, 소상공인지원팀과 함께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센터장은 군청 인구조획과장이 겸임하고 다른

인력들은 전문가를 채용해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군 소상공인 연합회, 중앙로 상가연합회, 강진읍시장협의회 등과 밀착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신용보증재단 융자 안내, 건축 관련 상담, 상표 등록 및 특허 신청, 마케팅과 홍보 업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창업과 성장, 안정, 특화 등 4단계로 나누어 지원한다.

‘창업’ 단계에서는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을 위한 원스톱 종합 안내와 신용보증재단의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등을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식탁 및 간판 정비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 개선을 도우며, 공공배달 앱을 활성화해 배달비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축제와 연계한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안정’ 단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전을 위해 점포 전기안전 점검 지원 및 보험료 지원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특화’ 단계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내돈내산 SNS) 등의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무 행정, 마케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강진군 3대 물놀이장 개장(7월 22일~8월 20일), 제1회 강진하맥축제(8월 31일~9월 2일), 제8회 강진만충추는갈대축제(10월 13일~10월 22일)에서도 강진군 소상공인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해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강진군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강진군 제공>



나주시가 세계 각국 예술작가들의 작업·전시 공간이자 국제적인 문화 교류 창구가 될 국제 레지던스 사업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지난 22일 가졌다. 윤병태(왼쪽 일곱번째) 나주시장이 국제 레지던스 참여 예술작가 6인과 이상민(왼쪽 다섯번째) 나주시의회 의장, 최형식(왼쪽 여섯번째) 전 담양군수 등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 나주시, 민선 8기 국제 레지던스 사업 ‘첫 발’

### 옛 공예소통창작소서 독일 등 국내·외 작가 6인 오픈 스튜디오 행사 윤병태 시장 “문화산업도시 시작점...원도심 발전·관광활성화 기대”

나주시에 세계 각국 예술작가들의 작업·전시 공간이자 국제적인 문화 교류 창구가 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문화예술거점이 탄생했다.

나주시는 지난 22일 죽림동 옛 공예소통창작소에서 국제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한 국내·외 예술작가 6인의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제 레지던스 사업은 민선 8기 시정 방침인 ‘융성하는 문화관광’ 실현을 목표로 민선 8기 전담부서로 신설된 ‘문화예술특화사업단’ (단장 장현우)에서 기획해왔다.

이 사업은 수많은 관광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관광산업, 원도심 활성화 복안으로 문화 소비 시대에 대응해 단순 하드웨어 관광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사업단은 국내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영역의 예술작가를 초청해 나주에서 국제 레지던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숙박비, 작품활동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첫 발걸음인 이번 오픈 스튜디오에는 회화, 설치미디어·조각, 만화 애니메이션, 사진 미디어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국내·외 예술작가 6인이 참여했다.

참여 예술작가는 독일 뉘른베르크 ‘정영창’ (회화), ‘안체’ (사진미디어) 폴란드 그단스크 ‘체슬라’ (설치조각), 아드리아나(회화), 미국 뉴욕 ‘마종일’ (설치미디어), 베트남 호치민 ‘하이푸’ 등 6명이다.

전시 작품은 총 76점(회화21·사진미디어24·설치조각18·만화애니메이션·설치미디어6)으로 옛 공예소통창작센터(나주시 학생운동길 25)에서 만

나볼 수 있다.

폴란드 출신 아드리아나 작가는 “예술은 국경을 넘어선 언어를 통하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 나주에 함께 있는 것”이라며 “나주시 국제 레지던스에서 다른 나라 예술가들과 교류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첫 기회를 우리가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6인의 작가들은 체류하는 동안 작품·전시 활동과 더불어 지역 대표 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 벽화, 설치 작품 등을 성과물로 남기고 나주시와 협의를 통해 기증 또는 영구 설치를 하게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국제 레지던스가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예술작가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키워내는 작품 공간이자 문화산업도시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나아가 민선 8기 시정방침인 융성하는 문화관광 실현을 통해 지역 주민과 문화로 소통하고 원도심 발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군, 석면 건축물 7400여동 순차 철거

### 내년 510동 대상

화순군이 1급 발암물질인 노후 석면 건축물 7400여동에 대해 연차별 철거를 추진 중이다.

화순군은 2021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 내 7466동의 석면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용도별로는 주택 6372동, 축사 168동, 창고 245동, 공장 20동, 기타 661동으로 집계됐다.

실태조사 이후 900여동을 대상으로 석면 철거 사업을 한 화순군은 내년에도 510동을 대상으로

철거를 지원한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택 1동당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고 면적 200㎡ 이하 비주택(축사·창고)은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 시 경우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민이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흥물축제 29일 예정대로 개최

### 수익금은 수해복구 위해 기부

정남진 장흥물축제 추진위원회가 오는 29일 축제 개최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수익금은 수해복구 지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전국적으로 집중 호우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논의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장흥군과 추진위는 물축제의 개최 여부와 취소, 규모 축소 등 다각적인 검토를 벌였다.

회의 결과 지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축제를 예정대로 개최하는 방향을 의견을 모았다. 단 수해 피해로 전국적으로 상심이 큰

분위기를 고려해 축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남진 장흥물축제는 해마다 40만~50만명 관광객을 불러모으며 300억원 상당 지역경제 효과를 내고 있다.

추진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올해 축제 수익금을 수해복구를 지원하는 데 기부하자고 뜻을 모았다.

주재용 물축제 추진위원장은 “최근 수해로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예정대로 축제 개최를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안전하게 축제를 추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장흥군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수강생 모집

### 내달 16일까지 30명

장흥군이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수강생 30명을 다음 달 16일까지 모집한다.

교육은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9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주 1회(총 16회)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창업을 가르치고 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산물 가공 창업 인허가 절차와 식품 표시기준 등 가공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8월 16일까지 교육 신청서와 자기 소개서를 작성해 내면 된다.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2개 과정을 모두 수료한 농업인은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 장비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장흥군농업기술센터 산청사(장흥읍 행원리)에 올해 하반기 착공한다.

습식, 농축, 건식, 착유(擠乳) 라인 등의 농산물 가공시설을 구축해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이수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산물의 가공기술, 상품화 프로세스, 유통마케팅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담양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펫푸드’ 추가

### 한우·곤약젤리 등 9개 선정

담양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답례품 품목 9개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은 기존 2차례 답례품 선정에 이어 3차 답례품이다. 지역 농특산물, 다양한 체형 상품에 꾸러미 상품, 반려동물 간식(사진) 등을 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추가된 답례품은 ▲한우 ▲우육수 ▲곤약젤리 ▲과일강정 ▲반려동물 간식 ▲과일꾸러미 ▲유기농 잡곡꾸러미 ▲간식꾸러미 ▲주책화재안전 꾸러미 등 모두 9가지다.

특히 반려동물 간식 ‘펫푸드’는 군에서 추진하는 메타프로그래밍 조성 사업과 함께 반려인들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꾸러미 상품은 바쁜 현대인에게 신선한 농특산물을 골고루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시대맞춤 답례품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이병노 담양군수는 “고향사랑 기부는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참여자의 수요를 관통하는 참신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화순군, 사회적기업 모집

### 8월 1일까지...인건비 등 지원

화순군이 하반기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을 받을 사회적기업을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신규 시설·장비 구매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 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제품공정 개선, 신제품 개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관리 등을 지원하는 고도화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협동조합, 지향기업(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기업당 50명 이내, 시설·장비 사업은 최대 2000만 원 이내이며 고도화 지원 사업은 최대 40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멸종위기 진노랑상사화 만개 내장산 국립공원에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인 진노랑상사화의 개화가 시작했다. 진노랑상사화는 7월 중순부터 8월초까지 관찰이 가능한 한국 특산식물이다.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야사무소 제공>